

대구 주보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2017. 12. 17.(나해) 제2083호

2018년 교구장 사목교서 |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http://www.daegu.jubo.or.kr>

T. (053)250-3048~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리기에도 합당치 않다.” (요한 1,23-27 참조) 모나고 위선에 가득찬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을 만날 때 주님의 길이 곧게 열릴 것입니다. _ 정미연 소화데레사 작

제1독서 이사 61,1-2 7,10-11 **제2독서** 1테살 5,16-24 **복음** 요한 1,6-8.19-28.

화답송 ◎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영성체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강수원 베드로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대림 제3주일입니다. 벌써 대림환에 초가 세 개나 켜졌고, 초 색깔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 구원의 빛이신 주님의 성탄이 그만큼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뜻이지요.

오늘 복음은 이천 년 전 유대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증언했던 요한에게로 우리를 이끕니다. 일상과는 거리를 둔 곳, 이집트를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던 바로 그 광야에서, 요한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오심을 사자후와 같은 울림으로 선포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3,2) 부정한 동물인 낙타 털옷을 입고서(레위 11,4) 고행과 참회의 음식인 메뚜기와 들꿀을 양식 삼아 회개를 선포하던 요한의 모습은 죄인과 의인 모두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충분했을 것입니다.

과연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요한에게 나아와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마르 1,5) 단순하고 소박했던 군중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서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를 가슴 가득 받아 안았을 때 느꼈을 기쁨이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멀찍이 떨어져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사제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분의 길을 준비한다는 예언(말라 3,1; 집회 48,10)을 알고 있었기에 요한에게 “당신이 엘리야요?” 하고 묻기도 하고, 모세가 예언했던(신명 18,18) 바로 “그 예언자”인

지 묻기도 합니다. 사실 요한은 분명 “엘리야의 영광과 힘을 지니고서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루카 1,17) 예언자였고, 예수님께서도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마태 11,14)라고 말씀하신 바 있지요. 그러나 이리저리 재어보기만 하고, 믿음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기고서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처하며 진심 어린 회개로 응답하지 않는 그들에게 요한은 주님의 현존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제1독서와 2독서, 심지어 화답송과 복음 환호송까지 모두가 하나같이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쁨과 설렘이 정점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어머니이신 교회는 결코 그 기쁨을 강요하거나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되신 하느님,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 역시 낮추는 자세와 회개로 응답할 때 얻게 되는 선물, 우리 존재를 통째로 바꾸어 놓을만한 구원 체험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선 주일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베푸는 선행과 자선은 회개의 진정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나를 더 작게, 주님을 더 크게 드러내고자 했던 세례자 요한처럼, ‘가장 작은 이들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한 희생과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연대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합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6)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사회현상 중 하나인 ‘1인 가구의 증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소비 형태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고 상업적인 부추김과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의 확대로 또 다른 사회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보다는 자발적인 독립과 고립을 선택하고, 나 혼자만의 행복과 안락함을 제일 중요한 우선의 가치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고립과 극심한 외로움으로 이어져 홀로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계 강대국들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난민수용을 거부하는 고립주의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시대에 만연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고통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실상과 이런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현실을 끊임없이 비판해 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 즉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358항)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숭고한 가치체계를 허물고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소외시켜 인류 공동체가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나를 타인, 특히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개방하고,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서 인격적이고 영적인 나눔이야말로 개인과 공동체, 더 나아가 사회를 변화할 수 있게 하는 ‘온전한 인간 발전’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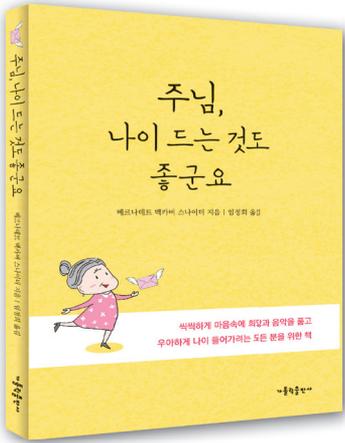
저는 올해 자선 주일을 맞아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이웃과의 형제적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본이자 가장 귀중한 보물이며, 그것은 사랑 안에서 가능합니다. 다양한 빈곤을 물리치고 형제애를 증진하는 방법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연대로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데에 나서도록 초대합니다. 가난한 이들이 외치는 초대를 외면하지 맙시다! 마음의 문과 성당의 문을 활짝 열고 손을 내밀어 가난한 이들을 맞이하고 사랑합시다!

기쁨의 원천인 사랑을 직접 보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형제적 친교를 경험하는 사랑 실천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2017년 12월 17일, 자선 주일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운희** 주교

주님, 나이 드는 것도 좋군요

가톨릭출판사



언제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이 드는가? 눈이 침침해지고 멀쩡 하던 무릎이 쭈실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 우울함이 밀려 올 때? 몸이 약해지니 마음도 약해지기 쉬운 노년의 시기,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반갑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여기, 나이 들어가는 것은 하느님과 더 가까이 만나는 은총의 시간임을 알려 주는 작가가 있다. 그는 85세의 고령임에도 늘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갖고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여유를 지녔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바꾼다. 이 책은 그러한 저자가 하느님께 쓴 기도 일기다.

베르나데트 맥카버
스나이더 지음 | 임정희 옮김
184면 | 10,000원

좋은 주님, 오늘 오전, 저는 주차장에서 차를 약간 비둘게 대는 바람에 차를 뒤로 좀 뺐다가 다시 대야 했어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주차를 기다리던 젊은 여성은 짜증이 났던 모양이에요. 고개를 내밀며 소리치더라고요. “정신 좀 차리세요!” 주님, 저는 정신을 차리고 살았어요. 수많은 날이 오고 갔지요. 깨달음과 어리석음, 기쁨과 슬픔, 그리고 영광으로 가득한 날이었어요. 제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그 하루하루를, 그 모든 날을 당신께 감사드려요. 저는 여전히 좋아하는 일을 대부분 해낼 수 있어요. 예전만큼 빨리하거나 그만큼 잘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럼 또 어떨까요? 예전에는 잘 해냈고, 제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걸요.

- 본문 중에서

이렇게 저자는 주님과 대화를 하며 마음을 편하게 먹고 유머를 던질 여유를 가지게 된다. 이 책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이웃이 너구리를 잡은 일, 시리얼을 처음 먹어 본 일, 구두를 싸게 산 일, 아침에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고 놀란 일, 심지어는 책을 읽다가 놀라운 내용을 본 일에 관해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소박한 주제를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주님과 대화하며 저자는 매일 새로워지고 성장한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나이 들어가고 있다. 우리도 저자처럼 “저는 정신 차리고 살았습니다.”라고 외치고,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에 기뻐한다. “지지고 볶으며” 살고 주님께 기도하며 “협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저자처럼 일상을 모두 주님께 봉헌한다면 주님 곁에 있는 은총을 느낄 수 있고, 더더욱 기도할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오늘부터라도 이 책과 함께 씩씩하게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주님과 매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 가장 우아하게 나이 드는 법임을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필독**

아하~ 그렇구나!

알쏭달쏭 천주교 용어



렉시오 디비나 <라> <영> Lectio divina

수도승 전통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성경을 통하여 인간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하느님을 만나며 그 말씀에 응답하여 하느님과 관상적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수행을 말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활동인 동시에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 활동입니다. “거룩한 독서”, “신적 독서”, “성독”(聖讀)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마귀 魔鬼 <라> daemon <영> demon

히브리말, 그리스말 성경 본문에서 쓰인 낱말에 따라 “마귀”(daemon), “악마”(diabolus), “사탄”(Satan), “악령”(spiritus malignus)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을 구분 없이 통칭하여 쓸 때에는 일반적으로 “마귀”라고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마귀들은 악마와 더불어 하느님의 주권을 무시하고(유다 6,8 참조) 지옥에 갇혀(2베드 2,4 참조), 악령들이 된 것입니다.(에페 6,12 참조) 악마라고 불리는 이 타락한 천사들은 하느님과 그분의 구원 의지를 거스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활동에 반대하며, 하느님에 대한 자신들의 반역에 인간을 끌어들이려고 힘씁니다. 영적 피조물로서 죄를 지은 마귀들은 “사탄의 부하들”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그들이 사악한 우두머리에게서 어떤 임무를 받았음을 가리킵니다.

말씀 전례 <라> liturgia verbi <영> liturgy of the Word

미사는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로 구분됩니다. “말씀 전례”는 하느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들으며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예식입니다. 흔히 미사의 전반부에 거행하며, 독서, 화답송(시편 또는 성경의 찬가), 복음 환호송, 복음 봉독, 강론, 신앙 고백, 보편 지향 기도 순서로 거행됩니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55-71항 참조).

망덕 望德 <라> spes <영> hope

향주덕(믿음, 희망, 사랑) 가운데 ‘희망의 덕’을 가리킬 때에는 “망덕”이라는 말을 그대로 씁니다.

맨발 수도회 <라> discalceati <영> discalced

완화된 기존의 수도회를 개혁한 수도회를 일컫습니다. 예컨대, 맨발 가르멜회, 맨발 프란치스코회 등입니다. 통상 개혁된 수도회는 기존의 수도회보다 엄격한 회헌과 회칙을 바탕으로 철저한 고행과 기도 생활에 투신했습니다. ‘맨발’은 이러한 개혁 정신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으로, 맨발 수도회에 속한 이들은 실제로 맨발로 살았습니다.

머릿돌 <라> lapis primatius, lapis angularis <영> corner stone, head stone, angle stone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에 처음 놓아 기둥을 받치는 돌을 “모퉁잇돌”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에는 주로 “머릿돌”이라는 말을 씁니다. **골로**

<발췌_ 천주교 용어집(2017)>



- 12. 11(월) ~ 12(화) _ 주교 영성 모임
- 12. 13(수) _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사제 · 부제 서품식

대구주보 표지 '정미연 작가의 성화묵상'

2018 북타입 스마트 탁상용 신앙캘린더 출시

2018년 교회 전례력이 수록된 대구대교구 탁상용 신앙캘린더가 출시되었습니다. 본 캘린더는 기존 일반 스프링형태가 아닌 책장을 넘기는 방식의 북타입으로 디자인되어 사용이 간편하며, 전례력뿐만 아니라 교구의 주요 행사까지 표기되어 교구민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개별케이스로 포장되어 연말연시 선물용이나 선교용으로 좋습니다.



판매가 : 7,000원 문의 : 교구 문화홍보실 (053)250-3046~9

판매처 : 교구 문화홍보실, 성바로 서원, 성바로딸 서원,
 성바로딸 범어 서원, 바티카노, 삼덕성당 임마콜라따 성물방,
 동천성당 성물방, 월성성당 성물방, 범어대성당 성물방

※ 택배비는 별도이나 100권 이상 주문하실 경우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유사 종교(사이비) 피해 사례 제보 받습니다!

유사 종교(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유사 종교 피해 사례를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보전화 : 교구 소람상담소, 053)250-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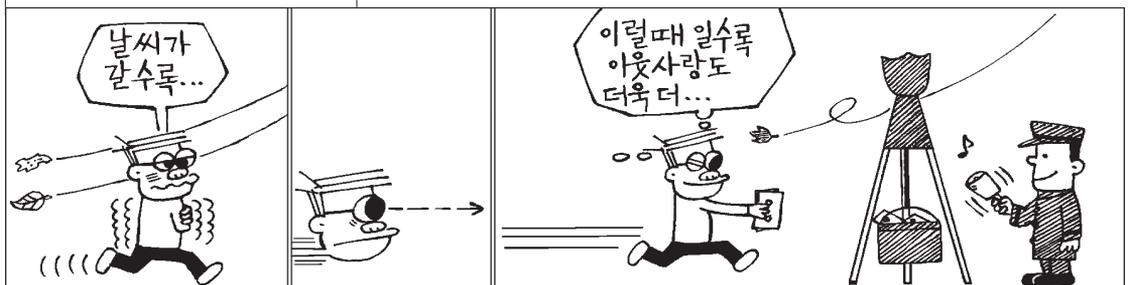


답게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사용하지 않는 난방기구 플러그 뽑기에 마음을 쓰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박성규 엘리지오



미 사 안 내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2월 18일(월) 10:30 범어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8일(월) 11:00 죽도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을 12월 후원회미사	12월 18일(월) 11:00 수성성당	한티순교자현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8일(월) 11:00 피정의집대성전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8일(월) 11:00 계산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2월 21일(목) 10:00 평화성당

성소 | 피정

비움과 채움을 위한 젊은이 송년 피정

기간: 12.31(일) 16:00~1.1(월) 10: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앓숨 분원
 대상: 만 35세 미만 남녀 청년
 회비: 1만원
 신청: (010)9286-2247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기간: 12.30~1.2 / 1.8~10 / 1.17~19
 1.23~26 / 2.2~4 / 2.6~9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제32차 신규약 성경 통독 피정

기간: 1.6(토)~14(일)
 장소: 루하피정센터
 (오순절평화의수녀회)
 문의: (010)3758-3572,
 홈페이지 참조

젊은이들을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기간: 1.19(금) 13:00~21(일) 16:00
 대상: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상처를 치유받고 싶은 젊은이
 회비: 3만원
 문의: 음성꽃동네, (010)5490-5345

교육 | 모집 | 기타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권민자 수녀)

3박 4일: 1.11(목)~14(일) / 1.16(화)~19(금)
 8박 9일: 12.26(화)~1.3(수) / 2.1(목)~9(금)
 청년 피정(35세 미만): 1.27(토)~30(화)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신청: (010)4906-5722 / (031)953-6932

살레시오 여름 초등 신앙학교(광주)

일시: 2018.7.20(금) 2박 3일, 총7차
 장소: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주제: 랄랄라~성가정 속으로 yo!
 접수: 12.20(수)부터 선착순 / 10만원
 문의: (062)373-0942 / (010)4141-2271

2018년 살레시오 초등부 여름신앙학교

기간: 2018.7.21(토)~8.16(목)
 장소: 살레시오청소년수련원(대전)
 주제: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접수: 12.27(수) 10:00부터
 문의: (042)584-0654, 홈페이지

양업고등학교 행복한 겨울캠프

기간: 2018.1.4(목)~6(토) 2박 3일
 대상: 중 1~2학년
 접수: 12.19(화)부터 선착순
 신청: 양업고 홈페이지
 문의: 양업고, (043)260-5076

제5차 마 신부님 아일랜드 영어연수

대·일반: 2018.3.4~5.18(6주, 장기 선택)
 ULearn 학원·더블린 시립 대학교
 아일랜드인 홈스테이 가정 숙식
 후원: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문의: 그린피시이엔티, (02)3446-4253

2018년 가르멜 재속회원 모집

예수의 성녀 데레사: (010)2518-4008
 가르멜산의 성모: (010)2686-3282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010)6655-0051
 십자가의 성 요한: (010)8594-2655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망설이는 환우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세요.
 후원: 대구은행 143-05-000-837-8
 문의: 650-3428~9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7년 대상자 /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Neome Skin Clinic **네오미피부과**

원장/피부과 전문의 이준호 시메온

소아, 난치 피부질환 클리닉
 명품레이저 보유

월성CGV 건너편 T.053)656-0075

NAVER 네오미피부과

이 원 의 료 기

혈압계 · 혈당계 · 당뇨소모성재료
 휠체어 · 주사기 · 보호대 · 뜰 · 부항기
 주열기 · 체온계 · 욕창매트 · 환자용품
 안마기 · 실버카 · 산소치료기 · 찜질기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나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2513

신랑각시결혼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의사, 약사, 교사 환영
 이원교(요안나) | 21년 경력

053)476-1400 | 010-8216-3322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5인의 분야별 전문의
 검진부터 맞춤 진료까지

5속안심내과

지하철 1호선 각산역 2번 출구
 053)965-6633

윤영희 성형외과

· 서울대학교 병원 협력병원
 · 서울의대 성형외과 전문의 2명 진료
 (원장 윤영희 바오로, 박성규)
 수성구 어린이회관 맞은 편, 신축이전
 (3호선 어린이회관 역)
 T. 053)766-2454 / 2455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레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대한수면의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생물치료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기쁘게 섬기십시오. (에페 6.7)
 말씀을 기억합니다.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 053-424-8525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2월 20일(수)은
(故) 정학모(루가) 신부
선종 2주기입니다.

행사 | 모임

12월 예비신학교 방학미사

일시: 12.17(일) 14:00
1~5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성당
*교구 모든 예비신학생을 위한 미사
(학부모님도 오실 수 있습니다)

가톨릭 미용인회 빛모임

일시: 12.18(월) 20:00
장소: 교구청 가정사목담당 회의실
대상: 가톨릭신자인 미용인
문의: (010)9518-7090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12.18(월) 1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교육 | 모집

오르간 성악 지휘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C.P.E.(임상사목교육) 교육생 모집

기간: 1.18~5.6 매주 목 10:00~17:30
1.13~5.6 매주 토 10:00~17:30
대상: 타인의 돌봄에 관심 있는 분

비용: 80만원(선착순 8명)
문의: 성바오로CPE센터, (010)4143-5508

2018 가톨릭교리신학원(통신) 신입생 모집

원서마감: 2018.2.9(금)
과목: 성경, 교의, 전례 등 26과목
대상: 평신도, 수도자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대가대평생교육원 겨울학기 모집

학점은행(사회복지학·아동학·실습포함)
음악원(4·6·8주 과정, 1:1레슨)
취미·교양 / 전문가 / 자격증과정
마감: 12.30(토) / 문의: 660-5554~7
http://conedu.cu.ac.kr

가톨릭문화관 수강생 모집

바이올린: (화) 18:30~19:30
성인생활영어 기초: (수) 14:30~16:00
중급: (목) 17:00~18:30
성가반주(미사/코드): (목) 13:30~15:00
문의: 가톨릭문화관, 476-6211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난타·교전무용·장구, 오카리나, 가곡성가, 성가반주_오르간, 제대꽃꽂이, 발성법, 왕초보관광영어, 사범자격과정꽃꽂이, 미술심리상담사2급, 초급원어민영어, 수지침, 자세교정_요가 / 신청: 254-6115

성령봉사회 송년 은혜의 밤

기간: 12.29(금) 21:00~30(토) 02:00

신년교례회: 1.5(금) 21:00~6(토) 02:00
청소년 성령묵상회: 1.12(금)~14(일)
장소: 고령 월막피정의집 / 신청비: 8만원
신청: 반석기도회, (010)4078-4688

채용 | 안내

교구 전산실 정규직원 채용

업무: 그룹웨어 및 ERP, DB 운영
조건: 교구 홈페이지 참조
접수: 사무처 우편 및 방문 접수
문의: 250-3092~3

교구 사목연구소 연구원 채용

자격: 대학원 졸업, 신학 전공, 사목연구 분야 유경험자 / 서류: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성적, 경력증명서
마감: 2018.1.12(금)
제출: 교구 사목연구소, 756-3454

한티 주방 직원 채용

대상: 숙식가능자
문의: 한티피정의집, (054)975-5151

구미 성모유치원 교사 채용

자격: 유치원 2급 정교사 이상
문의: 원장, (010)8814-2930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석조(크리스티나)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보건복지부 인증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말기암 통증 및 증상 조절
재능 및 기타봉사자 상시 모집
사랑나무의원 원장 권 은 수(가브리엘)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 112-1 (동구시장 맞은편)
24시간 상담 · 입원 (053)217-9500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출승!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 진 옥_루가
보건복지부 지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T. 555-5520 주전네거리 서문시장 맞은편

명동성당 앞
임마누엘 결혼정보
결혼정보 44년 전통
명동성당 정문 앞 한국 YWCA 504호
☎ 02)757-3343 이수산나

SM **수맥홍침대**
창업 26주년 세일 행사!
공장직판, 거실소파
☎ 1588-5335

Legend of Royal
Rex Diamond
보석 전문점 더 렉스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 · 감사선물 · 프로포즈 반지)
대표 임 미 순(마리아)
♥ 교동쪽 동아백화점과 시청 사이 ♥
(동아주차, 제일주차 무료)
☎(053)428-7989 | 010-4439-9991
교우님들께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

견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교),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대구, 경북 어디서나 포장이사 전문
2484익스프레스
환의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 구 313-2484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검진
위 · 대장내시경 · 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 · 고혈압
소화기 · 내시경 원장/전문 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